

2024 사순시기 생태적회개를 위한 성찰

"
보
시
니

참
종
았
다
"

창세 1.31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 살레시오수녀회

십계명의 내용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송하여라.

둘.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셋.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넷.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다섯. 사람을 죽이지 말라.

여섯. 간음하지 말라.

일곱. 도둑질하지 말라.

여덟.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아홉.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열.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공동의 집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무관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시기가 되면 단식과 절제, 자선을 살도록 초대받습니다.
이는 우리를 화해의 길로 인도합니다.

단식은 하느님과 화해하는 길입니다.
절제는 나 자신과 화해하는 길입니다.
자선은 이웃과 화해하는 길입니다.

나의 삶을 성찰하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을 믿고 자신을 용서할 용기를 청해 봅시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라봅시다.

하느님은 나의 삶에서 어떤 존재이신가?

나는 하느님을 내 삶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하느님을 갈망하는가? 곁에 계신 하느님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가?

나는 하루 중 어떤 행위로 하느님의 현존을 일깨우는가?

나는 아침마다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가?

아니면 하느님과 무관한 아침을 맞고 하느님과 무관한 하루를 보내는가?

나와 하느님의 관계가 공허하지는 않은가?

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기고 있는가?

나는 하느님을 내 삶의 원천이자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나요?

혹시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어 버린 적은 없나요?

타인과의 관계를 바라봅시다.

그와 나 둘 중 어느 한쪽만 과도한 부담을 진 관계는 아닌가?

타인과의 갈등 상황을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는 나에게 무엇을 연상하게 하는가?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 왜 그렇게 힘이 드는가?

그는 내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가?

이제 나의 책임을 바라봅시다.

나는 그에 대해 어떤 말들을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나는 그를 존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멸시하고 있는가?

마음 속으로 그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심지어는 심판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그 위에 서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나는 그를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마음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있는가?

나와의 관계를 바라봅시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나는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지고 있을 뿐인가?

나는 내면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가?

아니면 나는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 얽매어 있는가?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건강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있는가?

하루를 계획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루라는 시간을 때울 뿐인가?

나는 나 스스로를 심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어떤 상상들을 하는가? 그 상상들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 상상들에 나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나는 우울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혹은 자기 연민에?

끊임없이 자신을 동정함으로써 자신을 추락시키지는 않은가?